

자기계발서 분야 중 독서관련 도서의 세계관 분석

김민정¹⁾, 연혜민²⁾

I. 서론

현대는 자기계발의 시대다.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대학생들 그 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자기를 계발하려고 노력한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학원을 다니는 직장인들,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자기계발의 범위는 업무 능력의 향상이나 취업 준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외모를 가꾸는 것,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것, 훌륭한 예의범절을 갖추는 것 등도 모두 '자기계발'과 관련된다. 삶의 모든 요소들을 '계발'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다. 이런 자기계발 붐은 국가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과 같이 개인을 '자원'으로 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매스컴에서는 자기를 성공적으로 계발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사회 속에서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다.

자기계발은 “자아발달이나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개인적 실제”(정옥년, 2014), 혹은 “행위자가 자기 변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특히 자기 관찰, 개입(학습),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실천”(장희정, 전상진, 2007)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기계발'의 속성은 '개인의 변화'와 '실천'이다. 자기계발서는 개인의 변화를 부채질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돕는 책들이다. Starker(2008)는 자기계발서를 “어떤 문화와 세계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독자들을 계몽하고, 이들이 보다 만족스럽게 효과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심리적 태도나 실재를 제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중적인 논픽션 책³⁾”이라고 했다(정옥년, 2014 재인용).

자기계발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다(McGee, 2005, 정옥년, 2014 재인용). 첫째, 자기계발서는 특정한 시기의 사회적 문제에 반응한다. 둘째, 자기계발서 출판의 급성장은 내적인 심리학적 자아에 초점을 두는 경향에 의해서 불이 붙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기계발서에서는 공통적인 수사학적 장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계발서에 대해 합의된 내용들은 자기계발서가 현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그것을 현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자기계발서는 지금, 이곳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보는 책이다. 자기계발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습득할 것인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무엇인지?' 등의 물음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실천적인 답을 제공한다(백정미, 2011:57). 사고의 방식, 실천의 방식, 삶의 방식 등 자기계발서가 제안하는 많은 것들은 지금 당장 유용하지 않

1)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2)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3) 자기계발서 중에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독서 천재가 된 홍 대리』와 같이 픽션의 형태로 자기계발을 돕는 책들도 있다. 여기에서는 자기계발서의 장르적 특성이 중심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

면 선택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분야의 베스트셀러들을 살피는 것은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을 드러내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세계관은 이야기의 형태로 혹은 실제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결단이요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다(Sire, 2007: 23). 따라서 자기계발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대에 만연한 세계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렇게 생각하기로, 혹은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단하게 된다. 그것이 무의식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관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작업의 필요성이 더해진다.

Wilkens와 Sanford(2013: 12-13)는 현실의 삶에 스며있는 세계관을 의식해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사람들의 삶과 신념을 형성하는 세계관은 대부분 이론이나 지식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은 문화에서 비롯된다. 그런 세계관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문화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 (중략) 일상생활의 세계관은 대중적인 인생철학이며, 그 속에는 지성적인 요소가 별로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다. (중략) 따라서 우리를 지배하는 은밀한 세계관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 『은밀한 세계관』 (12~13)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자기계발서에 드러난 세계관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독서와 관련된 책들을 다룰 것이다. 독서는 단순히 눈의 활동을 넘어 지적이고 영적인 활동이며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 사고를 주도하는 독서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막강한 위력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읽는 것이 곧 우리이거나 우리의 되어가는 모습인지도 모른다(Sire, 2013: 222). 그러므로 독서를 다루는 자기계발서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들의 세계관을 살피는 것은 그것의 질을 가늠하거나 그것이 전하는 자기계발 방법의 유용성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는 현대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책들이 담고 있는 세계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계관을 가시화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II. 본론

1.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독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와 행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책을 정독하는 것이다(Gallagher&Lundin, 1995: 38). 가치 있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다양한 세계를 탐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다. 독서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가능한 인간의 반응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의 무한한 선택들을 탐색한다. 독서로 인하여 우리는 삶의 몇

몇 믿을 수 없는 가능성과 피할 수 없는 삶의 한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그래서 독서는 위험할 수 있다. Sire(2013: 193)는 최고의 책들이 사상과 관점과 도덕적 소신 따위의 강력한 전달 매체로서 그 책이 가진 가치관과 전달능력 때문에 읽는 독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에는 저자 개인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저자의 글 속의 인물들과 이야기 안에 어떤 철학을 옹호, 또는 비방하는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서는 저자의 세계관을 읽는 행위이다. 세계관은 인간의 사고와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것을 형성해 주는 신념체계를 표현한 것이다(Michael&Craig, 2011: 59). 책을 읽을 때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해서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안에 담겨진 세계관을 분별해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은 무한하시고 인격이시며, 초월적이시고, 내재적이며, 전지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선이신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무에서 우주를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고, 그 운행을 하나님이나 사람의 제조정을 통해 변화하거나 형성하도록 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인격, 자기 초월성, 지성, 도덕성, 사회성, 창조성 등을 지니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Sire, 2007: 35-42).

독서는 책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원리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간이 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작업이다. 그리스도인 독자는 책의 내용을 기독교의 신념 체계와 체험을 통해 의미화 할 수 있다. 즉,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 누가 읽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 19-20)고 말하여 창조주요 우주의 능력 있는 지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이 우주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Sire, 2007: 40). 이 속에 책도 포함된다. 어떤 책이라도 그 책을 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념체계를 견고히 할 수 있다. 또한 책을 통해 독자는 자신을 자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독서는 자기비판으로 독자를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는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선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세속의 독서가 책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책에 쓰인 내용대로 살도록 강요하거나 독서를 수단시 하여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독서는 인간 체험의 모든 영역을 만나는 것이다. 또한 자연세계와 도덕적 세계, 사상을 만난다(Ryken, 1991: 120). 그리스도인 독자는 독서를 통한 다양한 만남을 발견, 해석하고 의미화 하기 위해, 그 안에 담겨진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책에 나타난 세계관을 무방비상태로 받아들여지면 기독교인임에도 생각과 삶은 그 세계관을 따라가고 만다. 따라서 누가 책을 읽느냐는 아무 책이나 읽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책을 읽는 독자가 주체가 되어 책의 선정과 읽기방법, 읽은 후의 활동 등까지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 자체가 곧 독자의 세계관이다.

2. 자기계발서 중 독서 관련 도서에 나타난 세계관적 분석

1) 개인주의

개인주의 세계관은 개인이 일차적인 실재이며 우주와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개인주의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개인의 특별한 관심과 목표를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Wilkens&Sanford, 2013: 31).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개인은 통제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에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던 가정과 교회, 마을 공동체는 와해되었다. 울리히 벡은 이런 현대 사회를 일컬어 '위험사회'라고 했다. 이런 사회에서 성장한 개인은 선택과 책임의 영역에서 고스란히 혼자 남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능동적인 행위 모델과 자기중심성이다(Beck&Bonss, 2001, 전상진, 2008 재인용). 푸코의 '개인화 통치'는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사람들은 모두 독립된 개별자가 되었고,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별화 된 개인들은 스스로 선택과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책무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시대에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자로서(요한복음 8:32)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할 의무(obliged to be free)'(Rose, 1998: 17)를 지고 철저히 개인화 되어 자신이 우주인 삶을 살게 된다.

독서를 다루는 자기계발서들은 개인주의의 근원을 따지지 않는다. 당장 꺾어내야 하는 힘듦의 원인을 과해치기 보다는, 힘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도록 하거나, 현재 상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음을 설득한다. 그리고 개인이 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제안한다. 『고전 혁명』의 표지에 굵은 글씨로 쓰인 "세상의 중심, 삶의 중심을 '나'로 재편하라!"는 명령은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독서 천재가 된 홍 대리』의 주인공 홍 대리는 직장에서는 다른 부서로 좌천을 당하고, 집안 사정은 어려우며, 삶의 의욕도 없다. 이런 홍 대리의 독서 멘토인 지후가 하는 말은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독서가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서는 저라는 인간과 제 인생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어요. 내 꿈이 있는데 생계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길을 가야만 했던 부조리함. (중략)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독서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제대로 된 독서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자신만의 꿈을 살 수 있다고!" -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201쪽)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자신만의 꿈을 살아내는 것'이다. 자기에게 자기만의 우주가 허락되자 자신만의 꿈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홍 대리는 '마음이 뺨 뚫리면서 시원해지'고, '가슴이 벽찰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된다.'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에서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자가 알 수 없는 갈망으로 결국 퇴사한 후 도서관에서 그것을 해결하게 된다. 도서관에서 3년간 수천 권의 책을 읽은 후 1년 6개월간 33권의 책을 집필하며 저자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저자는 독서를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과 같은 수단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내가 경험하기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인생이 완전하

게 뒤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책을 읽기 시작하자, 그래서 내 안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자 인생이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98쪽) 이는 독서가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이를 수 있는 인생 전환의 방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유명인의 삶과 말, 도서의 글들을 인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묶은 『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는 아예 개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개인이 목표와 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스스로가 이를 평가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개인의 성공은 결국 개인 스스로가 변화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쇼펜하우어가 ‘즐기다’의 의미가 ‘자신을 즐기다’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며 개인이 이뤄낼 수 있는 행복도 자기 자신에 있다고 말한다.

개인주의는 아래에 상술될 도덕적 상대주의와 결합하여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삭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수단화한다.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에서는 책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만드는 기능’(193쪽)이 있다고 하면서도 책을 읽을 때에는 철저히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사실 책을 쓴 사람의 동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략) 그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좋으면 사용하면 될 뿐’이라고 한다. 원래의 창작 의도, 독서 행위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면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에서는 “병법은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준비를 끝내고 적을 기다리는 나를 믿으라고 한다. 적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수의 조건으로 “싸움에서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적은 물론 친구도 믿을 존재가 못된다.”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계속 개인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의식과 자각이 결국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준다는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주의는 개인을 공허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마흔, 고전에게 인생을 묻다』에는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는 독서가 소개된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은 저자는 “지금까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결국 빈속으로 돌아가더라도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타인이 아닌 나에게 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말이다.”(87쪽)라고 한다. 타인을 위한 노력은 포기된다. 인정받고, 증명되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치열한 삶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 삶은 ‘나를’ ‘나에게’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의지할 곳 없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독서 행위는 사람을 파편화된 개인으로 머무르도록 하지 않는다. 진정한 독서는 연대나 협력, 공감이나 헌신과 같은 가치가 개인의 우주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고전혁명』에서는 ‘단서 없이 자신을 온전히 믿어줄 사람은 자신뿐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어라.’는 명령이 ‘그 길의 끝에 당신이 원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98쪽)라는 예언으로 이어진다. 고전을 읽고 혁명이 일어나도 바뀌는 것은 없다. 『고전혁명』은 계속해서 사회 속, 관계 속에 있는 개인을 의식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격려하지만 그것은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의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이다.

2) 소비주의

소비주의 세계관은 처음에는 상대적이었던 소비를 절대적인 선으로 대체한 관점이다. 소비주의는 부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축적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소비를 절대화한다. 소비주의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물질적 소비로 충족될 수 있다고 말한다. Wilkens&Sanford는 이러한 소비주의를 사실상의 '세속종교'라고까지 표현한다(Wilkens&Sanford, 2013: 54). 주지하듯이 만족을 주는 소유의 정도는 정해져있지 않다. 근본적으로 소유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날 자기계발하는 '나'는 부모, 신, 자연 등과의 관계에서 실존의 의미가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기제를 찾아야 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기계발은 성공이라는 최대의 영업 실적을 목표로 한다(이정원, 2013). 하나님을 닮게 지음 받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말고는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 함몰된 현대는 사람의 본질을 잊고 실존의 의미를 찾는 방법으로 소유를 택했다. 현대인들은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기계발서에서는 물질적인 부를 향해 효율적인 삶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부의 정도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다.

Sire(2007)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는 '실용적 진리만이 유일한 종류의 진리'라고 했다. 이정원(2013)이 자기계발서의 유행 원인으로 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쓸모가 있다'는 점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유용함이다.

이는 독서를 다루는 자기계발서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세계관이다.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책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책 표지에 쓰인 내용들은 적나라하다. 『독서 천재가 된 홍 대리』는 "운명을 바꾸는 책 읽기 프로젝트", 『독서 천재가 된 홍 대리2』는 "성공을 현실로 만드는 책읽기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세상을 지배하는 0.1%의 인문고전 독서법"으로 설명되며,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는 "어느 경영학 교수의 대담한 고백"으로 "벤츠 타는 젊은 교수의 꿈꾸는 책읽기"로 소개된다.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또한 "11년차 평범한 직장인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까지 그 1000일간의 이야기"의 부제를 달면서 독서가 성공과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된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며 읽고 쓰는 능력을 개발할 것을 강권하는 사이트 다카시의 『읽고 쓰기의 달인』을 보면, 열심히 읽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당신이 읽은 것을 제대로 표현해 쓰기 위해서"(55쪽)이며, "쓰기의 달인이 되는 것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118쪽)이라고 한다. 그리고 쓰기에 필요한 그룹화와 같은 인지 능력은 "비즈니스맨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158)이라고 한다. 같은 작가의 책 『독서력』에서도 독서하는 능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독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읽고 쓰는 능력이 일상에서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에 충분히 동의하며, 작가의 논점이 일상생활에서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읽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언급이 독자를 설득하는 중요한 기제라는 점이다.

『독서 천재가 된 홍 대리2』에서는 독서를 '생존독서'와 '성공독서'로 나눈다. 생존독서는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독서'(55쪽)이고, 성공독서는 '미래를 만드는 독서'이며 '가능성을 발견하는 독서'이고, '나쁜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독서'(62쪽)라고 한다. 그러면서 "독서를 통해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바꾸고, 자신이 품었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독서의 목적은 자신의 변화

와 꿈의 성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꿈'이라고 멋있게 이야기 되는 것이 무엇인지이다. 홍 대리가 눈을 감고 그리는 꿈은 CEO이고(274쪽), 홍 대리가 성공한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도 좌절을 이겨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며 읽는 책도 멋있는 기업인의 평전이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 얼마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284쪽)를 역설하는 홍 대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독서의 영역에 어느 정도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책도 있다.

책을 읽으면 아는 것이 많아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적인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않는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벤츠를 살 수 있을 만한 생활수준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책 중에서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현실의 물질적 생활수준이 나아질 수 있다. 벤츠를 살 가능성이 생긴다. -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 173쪽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에서는 다른 책에는 그런 기능이 없지만 자기계발 분야의 책은 그것을 읽으면 물질적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고전 혁명』 등 인문 고전 독서가 경제적인 조건을 나아지게 해 주리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책들과는 확연히 다른 주장이다. 그러나 무엇을 주장하든 기저에 깔려 있는 가치관은 같다.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독서 행위는 투자 혹은 투기로 소비된다.

3) 도덕적 상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의 세계관은 진리는 그것을 주장하는 개인의 이익과 목표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윤리적 기준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도덕적 진리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진리는 기초가 없다고 보면서 기초가 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자신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오만하고 편협하며 폭력적이고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한다(Wilkens&Sanford, 2013: 102).

자기계발서에서는 스스로의 양심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있는 것들 즉, 현재의 실천의 결과로 나타날 좋은 변화, 혹은 더 나은 것을 정당화할 근거인 규범성을 지니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문제점과 자기계발을 통해 변화될 미래의 도달점을 비판,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정초된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전상진, 2008). 따라서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하는 자기계발의 필요성과 방법이 무엇이나에 따라 각각의 문제점과 도달점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독서와 관련된 자기계발서에서는 독서가 이러한 문제점과 도달점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에서는 맹목적으로 독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독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더 나아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독서를 통해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둔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편협한 자는 군자가 될 수 있고, 나약한 자는 강자가 될 수 있고, 소인은 대인이 될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일반 대중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독자는 저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마법처럼 말이다.”라며 독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가난과 부자, 둔한 자와 지혜로운 자 등의 대조적인 용어들은 일반화되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독서의 유무라는 기준에서 나눈 것이다.

반면, 독서와 관련된 자기계발서에서는 자신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에서 작가는 주위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살라고 말한다. 또한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가치를 믿고,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나’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타인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지 않으며 오직 진리와 윤리적 판단은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도덕적 상대주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없으므로 책을 읽고 얻는 것도 ‘가치’에 대한 확신이나 민감성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용기가 된다. 『고전혁명』에서는 물고기도 갖고 싶고 곰 발바닥도 갖고 싶지만 삶을 의미하는 물고기보다는 의를 의미하는 곰 발바닥을 택하는 맹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맹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당신 앞에 곰 발바닥과 물고기가 있다. 당신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사실 무엇을 택할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것은 그 선택이 진정한 용기인가, 용기 있게 보이고 싶은 가식인가다.”(77쪽)라고 말한다. 맹자를 읽고 옳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감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에 대해 ‘용기’를 갖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무관심하고, 선택한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는 도덕적 상대주의의 모순을 볼 수 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나쁜 의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결과는 “그 악한 시스템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114쪽). ‘나쁜’, ‘악한’ 것에 대한 대응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살아남는 힘을 갖는 것이고, 독서는 그 힘을 갖게 해 준다. 게다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문고전 독서로 다져진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왔다.’고도 하니 책 전체에서 강조하는 인문고전 독서는 먼저 악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셈이 된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책을 읽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흔, 고전에게 인생을 묻다』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평하면서 도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현실 정치의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불편함을 말한다. 도덕적인 이상에 대한 감각을 갖고 책을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감각은 곧 ‘현실을 직시하자’는 다짐으로 바뀐다. 운명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적극성과 인간에 대한 긍정을 읽으며 “보잘 것 없는 인간은 때로는 꿈수를 부려야 하는 처지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피셔(2011)는 읽기에 대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읽기는 평등하고 원칙이 있으며 사회 남녀 구성원의 보다 높은 이상에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이 될 수 있는 절대성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독서가 현실의 차원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4) 과학적 자연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며 물질적인 기본원소로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칙'은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의도적으로 창조되지 않았고 그저 단순히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특정한 원인적 요소와 특정한 조건이 결합하여 특정한 결과를 만든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법칙은 일정하며, 불변하고, 예외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도 '자연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물질의 집합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물리적 원인에 의해 생겨난 물리적 결과로 환원한다.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뇌와 같은 신체 기관에서 그 원인을 찾으며, 비물질적인 존재는 무시한다.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도 실재 즉 물질과 진리 즉 인과법칙에 이성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Wilkins&Sanford, 2013). 한편,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인간을 우주의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있다고 본다. 즉 지성, 세련된 문화, 선악의 분별력 등 때문에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의의식이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한 사건들이 곧 역사가 되고, 인간의 경험, 필요와 관심을 통해 윤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각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들이 만들어 내는 행동, 업적, 열망과 능력, 한계와 실패, 상상과 재주를 통한 놀라운 작품 등에 비추어 평가하려고 노력한다(Sire, 2007: 93).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독서라는 행위도 물질적으로 산정될 수 있다. 먼저, 독서의 질보다는 양을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무조건 많은 책을 읽는 것이 곧 인간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의 저자는 “한 권이 두 권이 되고, 두 권이 10권이 되고 (중략) 1000권이 이제 세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은 양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의 사고와 의식은 평범한 사람들이, 즉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108쪽)고 주장하며 자연주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 외에 독서에 양적으로 접근하는 책들은 많다. 『독서력』에서는 독서력을 갖추는 방법으로 4년 동안 문고본 100권과 신서본 50권을 읽을 것을 제안한다.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 본개적』에서는 1년 동안 1000권 읽고 권고사직 대상자의 오명을 벗은 직장인의 예를 들고 있다. 『독서천재가 된 홍 대리』 역시 마찬가지다. 홍 대리는 성공을 위해서 마치 게임과 같이 한 단계를 완수하면 그 다음 단계의 독서로 나아가게 된다. 처음에는 두 권, 그 다음에는 100일 동안 33권, 전공서적 100권 등의 순서로 책을 읽어나간다. 이런 책들이 양적인 독서만을 강조하거나 독서의 질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책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물질적이고 수량적으로 환원되는 사고방식을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독서의 효과를 기억의 유무로 평가하여 독서한 내용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뇌의 작동원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 본개적』에서는 책의 내용이 뇌에 오래도록 선명한 기억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네 번 읽기를 반복할 것을 추천한다. 한 달 동안 1일, 1주, 2주, 4주에 한 번 씩 총 네 번의 반복을 하는 1124 재독법을 할 때 뇌의 해마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라 판단하고 기억 속에 각인을 한다는 것이다. 독서를 기억하는 정보의 양만으로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독서를 통해 느끼는 감동과 독자 내면의 의미 부여 등 비 물질적인 가치를 배제한 자연주의 세계관을 드러낸다.

과학적 자연주의의 인과율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책을 읽으면 꿈을 이룬다.'고 말하기도 한다.

『독서 천재가 된 홍 대리』의 홍 대리는 독서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난감해 한다. 그렇지만 홍 대리는 매번 새롭게 결심을 하고, 시간을 쪼개어가며 열심히 목표한 양을 읽어낸다. 그렇게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확실한 보상이 뒤따른다. 자신감이 생기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며, 인간 관계가 좋아진다.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 본개적』에서는 ‘의미 없이 살고 있는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살아있는’ 책읽기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즉, 책 읽기에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닌 저자의 핵심을 제대로 보고, 자신의 언어로 깨달으며, 내 삶에 적용하는 이른바 ‘본개적’ 방법대로 하면 삶이 변화된다고 한다. 독서에 있어서 자연주의의 인과율은 배신하지 않는다.

III. 결론 및 제언

자기계발의 열풍은 자기계발서의 유행을 낳았다. 실제로 한 일간지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이래 자기 관리 분야의 도서 판매량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이숙진, 2010). 베스트셀러의 대부분은 자기계발서들이고, 대학생들이 가장 즐겨 읽는 책 역시 자기계발서이다. 다수의 대중들이 선택하는 책은 그 시대와 사회가 지향하는 독특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기에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임윤서, 2013). 게다가 자기계발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실용서이다. 따라서 자기계발서들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고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서 행위를 다루는 자기계발서들은 지금 이 시대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계관들의 핵심을 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독서를 다룬 자기계발서들을 통해 이 시대의 세계관을 가시화하고자 했다.

독서를 다룬 자기계발서들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을 크게 개인주의, 소비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과학적 자연주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을, 소비주의는 물질적인 풍요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자신이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된다고 말한다. 과학적 자연주의는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보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물리적 법칙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런 세계관의 토양에서 독서는 아주 개인적인 소망의 실현을 위한 도구이다. 독서를 통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며, 개인의 공허함을 위로할 수 있다. 독서는 또한 물질적인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현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뿐 아니라 독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게 해 준다. 독서를 통해 확장되는 사고의 폭은 도덕적 상대주의를 강화하는 정신 활동이며, 독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은 도덕적 가치 판단을 유보하거나 포기하고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는 당위를 부여하는 지적 변명을 제공한다. 또한 독서는 물량적으로 수치화되는 기준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과업이며, 열심을 다하는 독서 행위는 자연의 인과율에 따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관들은 보편적으로 함께 작용하지만 일관성이 없으며 내재적인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확실히 연관성이 있다. 개인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를 확인 받을 수 없기 때문

에 물질에 간절해진다. 개인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집합에서는 도덕적인 절대 기준을 상정할 수 없다. 물질적인 풍요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과학적 자연주의에서 파생되는 물량주의나 물리적 인과성을 신뢰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세계관들은 상호 교섭하면서 강화된다.

그러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개인주의를 말하는 책들에는 모든 개인이 같은 무게로 존중받아야 하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충돌하는 지점이 드러난다. 이런 독서를 통해서 ‘꿈’이라고 낭만적으로 표현되는 개인적인 소망이 ‘옳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독서가 부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책들은 물리적 인과율에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설득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이 인과가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경우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독서를 다루는 자기계발서들이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은 ‘독서’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사고를 주도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Sire, 2013: 190)의 독특한 위력은 수사적으로만 활용될 뿐이다. 이런 ‘독서’는 ‘운동’이나 ‘화술’과 같은 일반적인 자기계발의 방법으로 대치되어도 문제가 없다.

자기계발서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접근은 독서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을 떠올리게 한다. 기독교의 독서는 성경을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성경을 읽는 방식인 ‘렉치오 디비나’는 기독교에서 언어를 다루고 대상을 ‘읽는’ 방식의 가장 아름다운 모형이다. ‘렉치오 디비나’는 텍스트를 질문과 대답, 개념 정의와 교의로 탈인격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독서 방식이다. 유진 피터슨은 『이 책을 먹으라』에서 렉치오 디비나를 ‘삶의 방식이 되는 독서 방식’이라고 했다. ‘읽기’는 텍스트에 있는 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 안으로 텍스트를 가져오는 역동이 일어나는 과정인 것이다. 독서는 궁극적인 실체를 향하는 지적이고 실천적인 과정이고, 이 과정은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을 향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독서는 인간 존재를 귀하게 만든다. 이런 독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현대에 만연한 세계관들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세계관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Sire(2013)가 논했듯이 존재가 지식을 앞서며 지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음을 아는 것보다,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170-171). Wilkens&Sanford(2013)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내용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내용이나 믿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개인주의자처럼 살 수 있다.”(Wilkens&Sanford, 2013: 24)고 했고, Sire(2007)는 ‘기독교 유신론을 단지 지적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이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 세계관 안에서 사는 것과 관련된 심오한 인격적 차원이 있다.’(Sire, 2007: 352)고 했다. 이 시대에 만연한 세계관을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을 바르게 세우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을 점검하고 그에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Gallagher, S. V. & Lundin, G. (1989) Literature through the Eyes of Faith
김승수 역 (1995). 『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Goheen. M. W. & Bartholomew. C. G.(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윤종석 역 (2011). 『세계관은 이야기다』.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Peterson, E. H. (2006), Eat This Book.
양혜원 역 (2006). 『이 책을 먹으라』.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Ryken. L. (1985). Windows to the World.
권연경 역 (1991). 『기독교와 문학』.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 Sire, J. W. (2000). Habits of Mind.
윤종석 역 (2013). 『지식건축법』.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Sire, J. W. (2004).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2007).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Wilkins, S. & Sanford, M. (2009), Hidden Worldview.
안종희 역 (2013). 『은밀한 세계관』.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Rose, N. (1998). Inventing Ourselves. Psychology, Power, and Personhood. Cambridge:CUP.
- 이숙진(2010). “신자유주의시대 한국기독교의 자기계발 담론.” 『종교연구』. 60. 119-148.
- 이정원(2013). “자기계발 서적의 거짓말.” 『시민인문학』. 24. 57-74.
- 임윤서(2013), “대학생용 자기계발서의 구성과 서사전략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6(2). 23-44.
- 장희정, 전상진(2007). “자기계발의 시대, 자기계발의 약속, 그리고 자기계발의 위험.”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논문』. 연세대학교(2007. 11. 3)
- 전상진(2008). “자기계발의 사회학.” 『문화와사회』. 5. 103-140.
- 정옥년(2014). “심리적 자기계발서의 자아 구성 특징 분석.” 『독서연구』. 31. 129-162.

- 분석 대상 자기계발서 목록

	제목	지은이	출판사	출판년
1	고전혁명	이지성, 황광우	생각정원	2012
2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	최성락	문학동네	2014
3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김병완	문학동네	2013
4	독서력	사이토 다카시	웅진싱크빅	2009
5	독서 천재가 된 홍 대리	이지성, 정희일	다산북스	2011
6	독서 천재가 된 홍 대리 2	이지성	다산북스	2013
7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문학동네	2012
8	마흔, 고전에게 인생을 묻다	이경주, 우경임	글담출판사	2013
9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강상구	흐름출판	2011
10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 본깨적	박상배	위즈덤하우스	2013
11	읽고 쓰기의 달인	사이토 다카시	비즈니스맵	2009
12	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	예병일	21세기북스	2014